



미국 고용시장의 질적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

김세중 선임연구원

■ 소비자들의 경기전망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고 주택경기 회복세도 둔화된 것으로 조사됨.

- 컨퍼런스보드가 4월 24일 발표한 4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한 69.2로 나타났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도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51.4를 기록한 반면 6개월 후의 경기상황에 대한 신뢰도는 81.1로 전월에 비해 하락함.
-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4월 전년동기대비 3.5% 하락하였으나 하락폭은 201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4월 19일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3월 주택판매가 전월대비 2.6% 감소한 448만 채를 나타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월과 2월 주택판매가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밝힘.

■ 전반적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 소득감소, 학자금 대출 문제 등이 제기됨.

- 2011년 25세 미만 대출자 가운데 53.6%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거나 능력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대출자들이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도 취업이 가능한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 직업과 저소득 직업 간의 양극화로 평균 임금도 2000년 이후 하락함.
- 분야별로는 과학, 교육, 보건 분야의 취업이 활발한 반면 예술, 인문학 분야는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부 산간지방과 남동부 지역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스이스턴대학(Northeastern)의 노동시장 연구센터장 Andrew Sum은 많은 대출자들이 높은 등록금과 낮은 고용률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출자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자금 대출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함.

(Bloomberg, 4/24 등)